

- 주요 뉴스: 미국 11월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비 상승. 중국은 Nvidia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 유로존 12월 Sentix 투자자신뢰, 1년 만에 최저. 경기 후퇴 우려 등이 반영
 - 중국 지도부,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강화. 부양책 기대 증가
 - 일본 3/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대비 상향.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소비자물가 경계감, 중국의 Nvidia 반독점 조사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차익매물 출회, Nvidia 조사에 따른 투심 악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관련 경계감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중국 부양책 기대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 영향 등으로 1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28.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0.5원, 0.32% 하락).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12/9일	12/6일	전일대비			12/9일	1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52.9	6,090.3	-0.61%	국채금리 10y	미국	4.20%	4.15%	+5bp
	유럽	521.22	520.47	+0.14%		독일	2.12%	2.11%	+1bp
	중국	3,402.5	3,404.1	-0.05%		영국	4.27%	4.28%	-1bp
	일본	39,161	39,091	+0.18%	CDS 5y	한국	37bp	36bp	+1bp
	한국	2,360.6	2,428.2	-2.78%		중국	62bp	63bp	-1bp
환율	달러지수	106.14	106.06	+0.08%	위험지표	EMBI+	-	365	-
	유로화	1.0554	1.0568	-0.13%		VIX	14.19	12.77	+11.12%
	엔화	151.21	150.00	-0.80%		WTI유	68.37	67.20	+1.74%
	위안화	7.2586	7.2717	+0.18%	원자재	구리	422.4	413.9	+2.05%
	원화	1,435.0	1,423.0	-0.84%		금	2,660.3	2,633.4	+1.0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비 상승. 중국은 Nvidia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 뉴욕 연은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1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2.9%) 대비 상승. 3년 및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6%, 2.9%로 전월(각각 2.5%, 2.8%)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 항목별로는 휘발유와 임대비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병원 치료비 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이번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일부에서는 대규모 감세 및 고율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다만 향후 경제가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이전에 비해 증가
- 한편 이날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당국에서 반독점 혐의로 미국의 대표적인 AI 반도체 업체 Nvidia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 구체적으로 Nvidia가 '20년 이스라엘 기업 Mellanox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일부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
-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첨단 반도체 및 무역 갈등 심화가 이번 조사의 빌미가 된 것으로 평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과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인상 시사 등에 대해 중국이 대응한 것으로 분석. 이날 Nvidia의 주가는 2.6% 하락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Oppenheimer, 내년 S&P500지수는 7,100까지 상승. 양호한 경제 전망을 고려

- S&P500지수가 양호한 경제 여건, 우호적 통화정책 기조, 견조한 노동시장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 7,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 또한 주당순이익 역시 금년 250달러에서 내년 275달러로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의 확산이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업체의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분석
- 한편 PIMCO는 부채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장기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발표. 다른 투자자들 역시 장기 국채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유로존 12월 Sentix 투자자신뢰, 1년 만에 최저. 경기 후퇴 우려 등이 반영

- 12월 Sentix 투자자신뢰는 -17.5를 기록하여 전월(-12.8) 대비 하락. 시장에서는 최근 독일 내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의견을 찾아보기 힘들며, 전반적으로 경기 후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지도부,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강화. 부양책 기대 증가

-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비통상적인 경기 둔화 억제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리창 총리 역시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발언
- 공산당 중앙정치국과 리창 총리의 경기 지원에 대한 의지 표명은 내년 대규모 재정 부양책 및 큰 폭의 금리인하 시행 가능성을 의미(ANZ)

■ 중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 만에 최저. 기존의 부양책은 불충분 시사

-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2% 올라 전월치(0.3%) 및 예상치(0.5%) 하회. 같은 달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5% 떨어져 10월(-2.9%)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하락세 지속. 이번 결과는 지금까지 당국에서 추진한 부양책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음을 의미

■ 일본 3/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대비 상향.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

- 3/4분기 GDP(수정치)는 전기비 0.3%, 연율 기준으로는 1.2% 증가. 이는 속보치(각각 0.2%, 0.9%) 대비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며,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인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
- 한편 일본은행의 히미노 부총재는 내년 기업가 대상 특별 연설을 계획. 일부는 이를 금리인상 전망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단위 노동비용 및 비농업부문 생산성
- 독일 11월 소비자물가, 중국 11월 수출입,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중국과 소통 재개. 캐나다는 트럼프발 관세 대응할 계획

- **트럼프 당선인, 시진핑과의 소통 재개** : 지난주 시진핑 주석과 대선 후 처음으로 연락을 했다고 공개. 다만 정확한 시점과 내용은 미언급. 한편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호 존중,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입장 표명. 또한 중국의 對美 정책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첨언
 - 한편 트럼프가 러우 전쟁의 휴전을 요구한 가운데, 러시아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트럼프의 연락이 아직 없다고 발표
- **캐나다 총리, 트럼프 관세에 대응할 방침** :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의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발언과 관련하여,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18년 정치적 민감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 성공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 국무부·대통령 자문위원 인선** : 차기 국무부 차관으로 크리스토퍼 랜도 前멕시코 대사를, 국무부 고문으로 마이클 니덤 前루비오 의원 비서실장,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에 마이클 앤턴 前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을 지명. 한편 대통령 자문위원으로는 변호사 알리나 하바를 임명
 - 트럼프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직 사임을 밝히고, 루비오 상원의원의 국무장관 지명으로 공석이 될 플로리다 상원의원직 출마를 고려
- **차기 중동 특사, 하마스 인질 관련 경고** :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지명자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이 취임일 전에 석방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

■ [해외시각] 트럼프 관세, 소비자 및 소매업체 부담 가중 우려. 국제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 **트럼프 관세, 소비자 및 소매업체 부담 가중될 전망** : 더욱 강력해진 관세정책으로 소매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히 가구당 연간 362~524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매업체는 이익률 하락이 불가피(WSJ)
- **미국 국채, 트럼프 2기 정책에도 안정세** : 트럼프의 감세관세 공약에도 10년물 국채금리는 선거 이전 수준까지 회복. 이는 재정적자 유발 우려가 대선 전에 이미 반영되었고,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일부 투자자는 트럼프의 취임 후 보다 명확한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 유지(Bloomberg)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양적긴축, 예상보다 더 느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소지 - Financial Times

(Even slower for even longer)

- 연준은 9월 양적긴축 속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준비금은 ‘풍부하다(abundant)’고 평가.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발표를 믿지 않고 있으며, 준비금이 ‘풍부한’ 수준이 아니라 단지 ‘충분한(ample)’ 수준으로 바뀌었기에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었다고 분석. 특히 준비금은 ‘풍부한’ 상황이었는에도 자금시장 금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
- 연준은 ‘풍부한’ 수준의 준비금을 반영하여 양적긴축의 조기 종료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시장금리의 급등과 같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양적긴축의 속도는 늦출 것으로 예상. 이에 양적긴축 종료 시기는 당초 거론되었던 내년 1/4분기가 아닌 내년 2/4분기가 될 것으로 추정

■ 유로존 국채, '25년 대규모 공급 예상되나 충분한 수요도 병존 - WSJ

(Eurozone Government Bond Supply Will Be Huge Again in 2025 But So Will Demand)

- 내년 유로존 정부 채권 발행 예상 규모는 1.28조유로로 금년보다 약간 적지만, 역사적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 일반적으로 대규모 채권 발행은 시장 변동성과 채권금리 상승을 유도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채권시장은 안정세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첫째, 비교적 높은 수익률과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투자 수요가 충분. 둘째,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프랑스 국채는 제외) 수요 증가. 셋째, 유로존의 높은 가계 저축률은 충분한 국채 매입 여력을 시사. 넷째, 이상 징후 감지 시 ECB의 시장 안정화 노력 기대 등

■ 중국의 경기부양책, 구체적 실행의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의구심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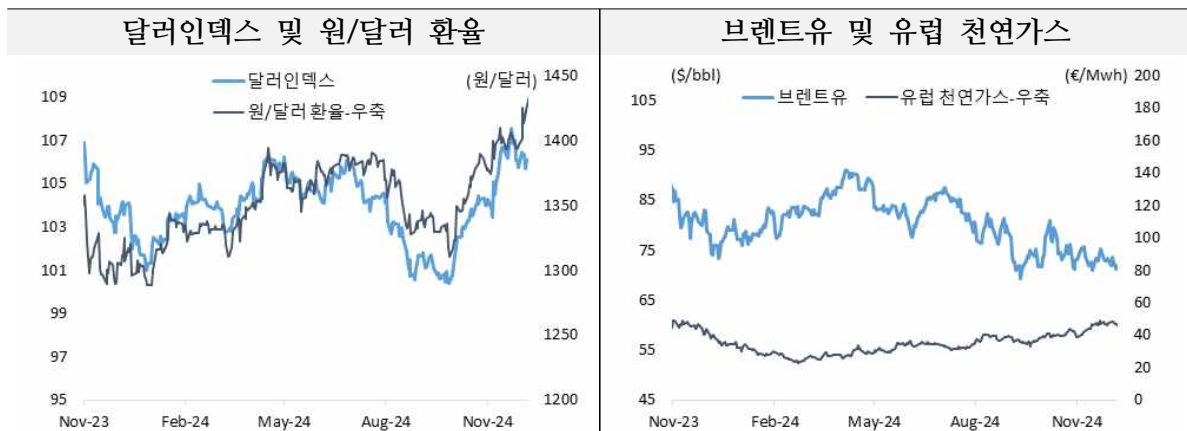
(Beware of China's Political Grandstanding on Stimulus)

- 당국이 9월 이후 부동산 및 증시 안정화,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실행 및 방안이 부재한 상황. 이에 다음이 3가지 해석이 제기. 첫째, 재정적자 우려로 실질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제한적. 11월 발표한 10조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스왑도 신규 차입이 아닌 기존 부채 교환에 불과
- 둘째, 모호한 정책 발표를 통한 시장 신뢰 및 경제 심리 개선 전략일 가능성. 셋째, 최근 고위 관료들의 비리와 인사 문제로 정책 집행력이 약화. 그러나 디플레이션 지속 등을 고려한다면, 당국은 실질적인 부양책을 이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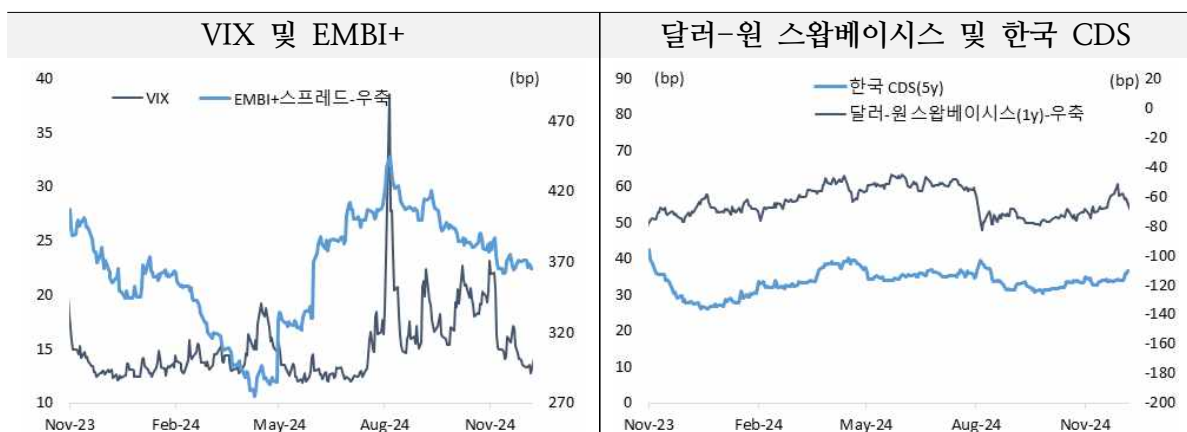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